

가정 예배 모범

- 2021_10_17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0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출애굽기 33:1-11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모세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크게 책망합니다. 책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1-6절)?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지만,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백성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 안락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도 의미 없습니다. 슬퍼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제하라고 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뿐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야 합니다.

2)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 무리 바깥으로 나아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7-11절)?

하나님께서서는 범죄 한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진멸할까봐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으로 갔습니다. 그때 구름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진 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기까지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없을 것만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